

수재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조 태 업 <홍보부>

대 도시의 함성과 바다의 교향시가 어우러진 부산.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관문으로서 태평양을 향해 열린 창문이다.

신발로 창업의 뜻을 세워 지난 40년간 폭넓은 산업분야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앞장서 이끌어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의 신발메이커로 성장,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상사를 찾았다.

• 회사개요

1949년 12월, 소규모의 내수용 신발 메이커로 시작해 산업 초창기에 국내 고무화학공업의 선봉장으로 각종 신발제품을 개발해 국내 신발시장을 주도해왔고, 1962년에는 국내 최초로 농구화 2천4백족을 미국에 수출, 우리 신발류의 해외진출에 기폭제를 만들었다. 1970년대부터는 해외 주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총매출액에서 수출이 내수 판매고를 앞지르게 되었고, 수출실적도 증가해 70년대 말부터는 신발 단일품목에서만 연평균 2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엔 전세계 100여개국에 수출하는 제품만도 2만여종에 이르는 급성장을 이룩했다. 자체 '스포츠제품 과학연구센터'의 면밀한 실험분석을 거쳐 개발되고 있는 '프로스펙스' 스포츠화는 이미 많은 국제경기 단체로 부터 공식스포츠화로 지정, 세계적 상표로 발돋움하고 있

다.

• 수재발생 및 경위

부산 사상공단내에 자리잡은 이 공장은 대지 약 62,400평에 사무실, 공장, 창고, 기숙사 등 41개동, 연건평 40,300평으로 공장내에는 컴퓨터재봉기, PRESS, 제화기, ROLLER, 재단기, 공작기, 콘베이어, MOLD 등 신발을 만들기 위한 각종 기계류가 설치되어 있다.

사고당일 22:00경부터 동 공장 과 인접한 "학장천"이 범람하고 하수구의 물이 역류하여 동 공장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비상대기조를 투입하여 공장내로 유입되는 물을 퍼내는 등 수재방지에 최선을 다했으나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공장의 침수속도가 빨라지자 전기를 차단하고 비상대기조도 대피시켰다. 7월 29일 04시경에는 전공장동 및 창고가 약 100~160cm 정도까지 침수되어 부산 수용중이던 각종 원·부자재, 제품 및 기계류가 7월 30일 08시까지 침수되었다고 한다.

한편, 부산 지방기상대에 의한 사고 당일의 기상자료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JUDY"의 영향으로 부산, 경남 일원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의 총 강우량은 258.1mm였으며, 최대풍속은 초속 11.3m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7월

28일 21:00부터 29일 04:00까지 7시간동안 내린 비는 179.2mm에 달하여 시간당 평균 25mm를 기록함으로써 가장 큰 사고원인이 되었다. 아울러 하구언의 배수상 문제점, 낙동강의 준설공사 미시행으로 인한 평균수위의 상승, 배수 펌프의 용량부족 등도 이번 수재를 확대시킨 요인이 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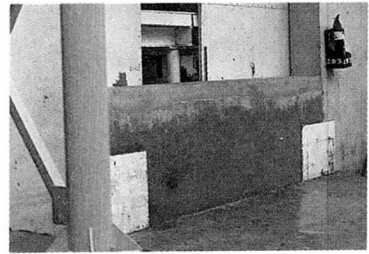
• 피해상황 및 손해보상

각종 유류, 오물 등이 혼합된 물이 공장건물 및 지하 1층 공장, 기숙사내로 유입되어 설치되어 있던 각종 기계류 및 MOLD 등 시설물이 침수되거나 훼손되어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했다.

특히 본공장동 지하층 8백52㎡ 기숙사 신관의 지하 나이트클럽 7백57㎡는 이번 침수로 내장재 및 관련 기기 전량을 교체해야 했고, 창고동에 보관중이던 각종 원·부자재의 피해 또한 엄청났다 고 한다.

공장동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약150cm 정도 침수되어 각종 기계류 및 몰드류 등이 결정적인 피해를 입어 이들 기계류의 보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국제상사는 88년 12월 27일자로 본 협회에 건물 및 기계시설을 보험목적으로 해 보험금액 3백69억8천79만3천원의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보험기간 3년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협회는 수재신



고후 보험목적물의 사고원인, 사고 경위, 피해상황 등에 대한 신속한 손해사정을 거쳐 1차로 가지급 2억원을 복구비로 지원했으며, 최종 손해상대 등을 세밀히 파악해서 총2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복구후 대책

지난 사고원인으로 지적되었던 1층 출입구와 지붕, 창문 등을 보수 및 보완하고 배수로 정비와 보유장비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한편 수방자재, 비상 전원장치,

집적물, 깔판 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 구성과 비상근무체제 확립, 기동 지원조 편성, 관계기관 협조 및 경보 신속전달, 인원과 물자의 이동대책, 수방장비관리자 임명 및 운영요령 등 세부계획을 세워 사내 취약지역을 각과별로 지정해서 유사시 집중적으로 보완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수재를 당해 느낀 점이 많으나 무엇보다 풍수재 관련보험의 적절한 이용이 아쉬웠다면서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화보험회에서 의무보험으로 취급하고 있어 어느 정도 실제 피해에 접근할 수 있어 여간 다행이 아니었다』는 송재환 과장은 그룹차원에서 재해의 사전예방조치와 보험을 통한 사후보상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공장 안전담당 진병득씨는 『그동안 재난에 대비해서 공장내에 소방시설 등 재해예방에 관련된 시설들을 회사측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번 천재에 대한 교훈은 영영 잊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사고현장을 취재하는 날도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많이 내려 그날의 아픔을 상기하듯 학장천의 하수구가 만수되어 있었다. 아직 준설 및 암거작업이 공장주위에서 계속 되고 있었다. ☹

○'89 태풍 "쥬디"이후 풍수해 대비시설 보완사항

보완내역	보완사유	계획	실시	비고
바닥높임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	1개소 (1,600평)	4개소 (2,520평)	진행중
수방문 설치 및 보완	입구를 통한 침수차단	설치 : 21개소 보완 : 15개소	설치 : 11개소 보완 : 13개소	진행중
수방펌프 증설	내수침투시 대비	고정 : 4 이동 : 15	고정 : 4 이동 : 9	
수방펌프 위치높임	모타 침수 방지	2개소	2개소	진행중
수방 맨홀 설치	내수침투시 수방펌프가동	9개소		진행중
입구 차단 작업	입구를 통한 수침차단	17개소	3개소	
입구높임	입구를 통한 수침차단	7개소	7개소	
창호교체 및 격자설치	창문을 통한 수침방지	19개소	19개소	
1층창문 물막이설치	창문을 통한 수침방지	131개소		진행중
수방벽설치	벽체를 통한 수침방지	3개소	1개소	
암거 설치 작업	배수구확장	1개소	1개소	진행중
		소요금액	1억1천만원	